

## 3. 과학적 개념

정치학연구방법론

박상훈 ([sh.park.poli@gmail.com](mailto:sh.park.poli@gmail.com))  
강원대학교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의미와 역할

우리가 만드는 과학적 지식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속성**의 용어로 이루어짐.

**개념(concept)**이란 경험적 현상을 추상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부여된 명칭.

- 개념은 변량을 담을 수 있는 **자료용기(資料容器, data container)**의 역할을 함.
- 이전에 다룬 인과관계의 추론척도, 항상적 연계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음.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의미와 역할

이론은 어떤 현상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

- 이론을 구성하는 현상들은 이론 속에서 **개념의 형태**로 표현됨.
- 인과적 진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론의 구성단위인 개념들이 각각 설명변인이나 종속변인의 위상을 가지고 **공변해야(covary)** 함.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의미와 역할

공변한다는 것은 변인이 지칭하는 속성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속성의 존재심도 (변량)가 연구사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함.

## 예시

경제성장을 설명변인, 정치체제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관계를 살펴본다고 하자.

- 이때 경제성장과 정치체제 각각의 개념이 다른 개념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님.
- '경제성장이 높고 낮음' 혹은 '정치체제가 더 민주적이거나 더 권위적인' 것처럼 그 용기 안의 내용물의 정도가 변화하는 것.

# 과학적 개념

## 기술과 인과, 그리고 개념의 관계

기술적/서술적 주장(descriptive argument)은 "무엇(what)" 질문에 답하는 경험적 주장이며, 인과적 주장(causal argument)은 "왜(why)" 질문에 답하는 주장(Gerring 2012).

- KKV (1994)에서 말하는 기술적/서술적 추론과 인과적 추론과 비슷한 개념임.
- 사회과학에서 기술은 종종 인과추론에 비해 저평가되어 왔음. "단지 기술적(merely descriptive)"이라는 표현이 그 단적인 예.
- 그러나 인과적 주장은 기술적 개념에 의존함. 민주주의가 평화를 촉진하는지 검증하려면, 먼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술적 합의가 필요

# 과학적 개념

## 기술과 인과, 그리고 개념의 관계

### 민주평화론의 역설적 패턴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덜 한다는 인과적 명제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합의가 존재함.

그러나 '민주주의'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인과적 명제는 상대적으로 확실한 반면, 그것의 기반이 되는 기술적 명제는 매우 불확실함. 이 역설은 개념화가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줌.

# 과학적 개념

##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단계

개념화는 다음 세 가지 단계를 거침.

1. 지칭대상에 **명칭**을 붙이고
2. 지칭대상이 지닌 **보편적 속성의 범주**를 만든 후
3. 각 범주에 속하는 **속성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조작(manipulate)하는 과정

# 과학적 개념

##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단계

### 왜 개념화가 어려운가?

사회과학 용어는 자연과학의 용어와 달리 명확성과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음.

- **예시:** 이데올로기(ideology)는 문헌에서 최소 35개의 속성이 발견되며, 이로부터  $2^{35}$ 개의 정의 조합이 가능함.
  - 각 속성을 정의에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의 선택지
- ideology, political culture, belief-system, value-system 등의 개념들이 서로의 속성을 침범하며 "단어들의 음악 의자 놀이(musical chairs with words)"를 벌임 (Sartori 1970).

# 과학적 개념

##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단계

### 왜 개념화가 어려운가?

개념화는 단순한 명칭 부여가 아니라, **이론 형성과 불가분의 과정**

- 개념 형성이 이론 형성을 이끌고, 이론 형성이 다시 개념 형성을 이끔.
- 개념 형성은 용어(term), 속성(attributes), 지시대상(referents)이라는 세 꼭짓점의 삼각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며, 어느 한 측면의 변화는 나머지 두 측면에 영향을 미침 (Gerring 1999).

# 과학적 개념

##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단계

### 왜 개념화가 어려운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더 포괄적인 개념**이 필요해짐.

- 해결책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개념의 의미를 **넓히는 것(conceptual stretching)**.
  - **외연(extension/denotation)**: 개념이 적용되는 사례의 범위
- 그러나 의미를 넓히면 **정밀도(precision)** 를 잃게 됨.
  - **내포(intension/connotation)**: 개념이 포괄하는 속성(properties)의 집합

Sartori (1970)의 핵심 명제는, 외연을 넓히면 내포를 잃는다는 것. 즉, 더 많은 사례를 포괄하려 할수록 개념의 구체적 의미는 더 적어짐.

# 과학적 개념

##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단계

### 개념 확장의 구체적 문제

**예시:** 'pluralism', 'integration', 'participation', 'mobilization'

- 이들은 서구 민주주의의 경험에서 출발한 **문화 종속적(culture-bound) 개념들**
- 비교연구를 위해 비서구 사회에 적용하면 개념의 외연이 넓어지고, 원래 의미가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짐.
  - 'pluralism(다원주의)'은 서구에서 자율적 하위 단위들의 다양성을 의미하지만, 비서구에 적용하면 "다원주의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공허한 명제가 됨.
  - 'participation(참여)'은 서구에서 자기 주도적(*self-motion*) 행위를 뜻하지만, 비서구에서는 동원된 참여와 구별 없이 뒤섞임.

# 과학적 개념

##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단계

### 개념 확장의 구체적 문제

**예시:** 'pluralism', 'integration', 'participation', 'mobilization'

- 이들은 서구 민주주의의 경험에서 출발한 **문화 종속적(culture-bound) 개념들**
- 비교연구를 위해 비서구 사회에 적용하면 개념의 외연이 넓어지고, 원래 의미가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짐.
- "**부메랑 효과(boomerang effect)**": 서구 개념이 비서구 현실에 맞게 수정된 뒤, 수정된 의미가 다시 서구 개념을 오염시키는 역설(Sartori 1970).

# 과학적 개념

##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단계

### 개념 확장의 구체적 문제

개념의 이동가능성(travelling capacity)을 높이기 위해 외연을 확장하면 **개념 오정보 (concept misinformation)**가 발생함.

사회과학의 개념 문제는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의 근본 문제**(Sartori 1970).

개념은 특정 문화적 맥락을 초월하여 이동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동 과정에서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과학적 개념

##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단계

### 이론적 정의(theoretical definitions)

본질적으로 다면적인 정치현상을 개념화하려면 우선 이론적 정의를 통해 다양한 측면들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을 선별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이론적 정의를 특정 사물의 본질을 모호하게 진술하는 실재적 정의(real definition)와 대비시켜 **명목정의(nominal definition)**라 부르기도 함.

- 이론적 정의는 개념화의 출발점이며, 어떤 개념의 외연(적용범주)을 분명히 밝히는 작업

# 과학적 개념

##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단계

### 이론적 정의(theoretical definitions)

#### 이론적 정의의 핵심적 특성

- 추상적 용어를 다른 추상적 용어들을 사용해 재구성하는 것.
- 용어가 지칭하는 속성의 가장 일반적인 범주를 이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목적.
- **예시:** '민주주의'라는 개념의 이론적 정의는 경쟁적 정당, 자유선거, 대중적 참여 수준 등 다양한 속성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선별하여 규정하는 것(Johnson et al. 2016).

# 과학적 개념

##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단계

### 이론적 정의: 일상언어 접근의 한계

개념 정의의 가장 오래된 방법은 **일상언어(ordinary language)**의 용법에 따르는 것.

- 그러나 대부분의 핵심 사회과학 개념들은 **다의적(multivalent)**. 역사적 맥락, 언어권, 문법 형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
- 뒤르켐(Durkheim)은 과학적 개념이 일상어의 개념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과학은 과학의 요건에 적합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정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따라서 일상언어는 개념화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도착점**이 될 수는 없음.

# 과학적 개념

##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단계

### 이론적 정의: 고전적 개념 접근의 한계

개념의 **필요충분조건**을 속성으로 특징하는 **고전적(classical) 개념** 접근.

- 개념은 항상(always) 그리고 오직(only) 그 지칭대상을 가리키는 속성들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이상(ideal).
- 그러나 이는 사회과학에서 좀처럼 달성되기 어려움(Gerring 1999).
  - **예시 1:** '어머니(mother)'를 "자녀를 출산한 사람"으로 정의하면 입양모, 대리모를 배제하게 됨.
  - **예시 2:** '민주주의(democracy)'의 필요충분조건이 경쟁성인지, 참여인지, 책임성인지, 기본권 보호인지 합의되지 않고 있음.

# 과학적 개념

##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단계

### 이론적 정의: 고전적 개념 접근의 한계

따라서 사회과학 개념화는 필요충분조건의 확정이 아닌, **복수의 기준 간 균형**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함.

- 개념 형성은 고정된 규칙을 따르는 방법(method)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들 사이의 **절충 (trade-off)** 을 수반하는 역동적 과정(Gerring 1999)
- 어떤 한 기준에서의 성취는 종종 다른 기준에서의 희생을 요구함.

# 과학적 개념

##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단계

### 이론적 정의의 네 가지 원칙

개념을 명확한 의미의 전달매체로 만들기 위한 네 가지 원칙.

1. 정의는 대상의 **고유속성**을 명백히 지칭해야 함.
2. 정의는 **순환적이어서는 안 됨**. (예: "민주주의란 민주적인 것이다"는 순환적 정의)
3. **부정형 정의를 피해야** 함. (대상이 "무엇이 아닌가"가 아닌, "무엇인가"를 서술)
4. 누구에게나 의미가 명확한 **객관적(상호주관적) 용어**를 사용해야 함.

# 과학적 개념

##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단계

### 이론적 정의와 구체성의 원칙

이론적 정의가 추상적일수록 경험적 검증은 어려워짐.

- '유용성(utility)',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문화(culture)', '정체성(identity)' 같은 개념은 관측이 불가능한 추상적 구성개념.
- 이런 개념들은 이론 구성에 유용하지만, 경험적 함의(empirical import)가 없다면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과학적 개념

##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단계

### 이론적 정의와 구체성의 원칙

### 구체성 극대화(maximize concreteness) 원칙

관찰 가능한 개념을 그렇지 않은 개념보다 우선하고, 추상적 개념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의 관측 가능한 함의(observable implications)를 명시해야 함(KKV 1994).

- **예시:** '대통령제의 제도화'라는 개념보다 '백악관 참모 규모'가 더 구체적. 전자를 쓰더라도 후자와 같은 지표를 통해 경험적으로 연결해야 함.

# 퀴즈 1: 개념 확장의 딜레마

다음은 Sartori (1970)의 "추상화의 사다리"에 관한 문제.

**Q. 비교정치학자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정당 간 경쟁', '보통선거권' 등의 속성 중 '선거가 실시되는 체제'로만 범위를 좁힌다면, 이 연구자의 전략은 Sartori의 틀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A.** 이 연구자는 외연(적용범위)을 넓히기 위해 내포(속성)를 줄이는 사다리 오르기를 수행한 것. 그러나 '선거 실시'만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하면 북한이나 이란처럼 형식적 선거만 존재하는 국가도 민주주의로 분류될 위험이 있음. 이는 **개념 확장(conceptual stretching)**으로 인한 **개념 오정보(concept misformation)**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함.

# 과학적 개념

##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단계

###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s)

이론적 정의를 통해 얻은 속성의 범주와 현실세계를 연결시키는 역할.

- **교량의 원리(bridge principles)**: 이론적 시각과 경험적 세계를 반드시 연결시켜야 함.
  1. 교량의 원리는 이론의 검증가능성과 연관됨.
  2. 이론의 성공적 도출 여부는 전적으로 **가설의 검증가능성**에 달려 있음.

# 과학적 개념

##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단계

###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s)

가설의 검증가능성이란 가설이 제시하고 있는 변인들(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진술이 현실세계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함.

- 추상적 개념을 측정지표들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조작적 정의.
- 이론적 정의를 통해 확보한 추상적 구성개념(construct)만으로 이루어진 **이론가설 (theoretical hypothesis)** 은 조작정의를 통해 얻은 측정지표로 재구성된 **작업가설 (working hypothesis)** 로 전환될 때 검증 가능해짐.

# 과학적 개념

##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단계

###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s)

어떤 개념이 지칭하는 추상적 속성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재구성하는가?

-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타당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매체는 **수(number)**.
- 측정지표는 주로 **계량지표(quantitative indicator)**의 형태를 가짐.
- 그러나 정치현상의 모든 측면을 계량화할 수 없으며, 지칭대상의 속성을 계량지표만으로 재구성한 조작정의를 실제 현상을 방법론적으로 축소시킬 위험성이 있음.

# 과학적 개념

##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단계

### 조작적 정의: 물화(reification)의 위험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지표 사이의 간격을 과소평가하면 심각한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연구자가 조작정의를 내린 뒤 측정지표에 추상적 개념의 이름을 그대로 붙임으로써, 마치 그 지표가 개념 자체를 완전히 측정하는 것처럼 간주하는 오류를 **물화(reification)** 라고 함.
- **예시:** 우편, 무역, 관광, 학생교류 지수를 '사회적 통합(societal integration)'으로 명명하거나, 설문 응답을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로 명명하는 경우

# 과학적 개념

##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단계

### 조작적 정의: 물화(reification)의 위험

물화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태도가 필요함.

- 지표와 개념 사이의 거리를 항상 **명시적으로 인식**해야 함.
- **다른 지표를 통한 추가 검증**으로 그 거리를 보완해야 함.
- 제한적 지표들로 구성된 이론들은 **불완전한 지식(imperfect knowledge)** 을 제공한다  
는 점을 겸허히 인정해야 함.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유형

### 추상성과 실증성의 수준에 따른 유형

개념의 유형은 과학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님. 검증될 가설의 성격을 규정하고, 역으로 가설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유형의 개념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

- 추상성과 실증성(경험적 지칭성), 외연성(denotation)과 내포성(connotation)을 갖느냐에 따라 개념의 유형이 달라짐.
- 개념화의 과정은 고도의 이론적 추상성을 출발점으로 하고 고도의 실증성과 실측성을 종착점으로 삼는 연장선(theoretical-empirical continuum)을 타고 전개됨.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유형

### 추상화의 사다리(Ladder of Abstraction)

Sartori (1970)는 추상화 수준에 따라 개념을 분류하는 틀을 제시하였음.

-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외연(적용 범위) 확대 ↑, 내포(구체적 속성) 감소 ↓
- 사다리를 **내려올수록**: 내포(구체적 속성) 증가 ↑, 외연(적용 범위) 감소 ↓

### 예시

- 상위 수준(High Level): "staff" → 보편적,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
- 중간 수준(Medium Level): "civil service", "administration" → 특정 속성 추가
- 하위 수준(Low Level): "프랑스 국가공무원", "영국 국가공무원" → 맥락적 구체성 극대화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유형

### 추상화의 사다리: 개념 이동의 규칙

올바른 사다리 오르내리기 규칙(Sartori 1970)

- **올라갈 때**: 속성(properties)을 **줄여서** 외연을 넓힘 → 개념이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이 됨.
- **내려올 때**: 속성(properties)을 **더해서** 내포를 풍부하게 함 → 개념이 더 구체적이고 맥락적이 됨.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유형

### 추상화의 사다리: 개념 확장의 문제

#### 개념 확장(**conceptual stretching**)이란?

올바른 사다리 이동 없이, 즉 속성을 제거하지 않은 채 외연만 강제로 넓히는 것.

- 결과적으로 외연을 내포를 흐리게(**obfuscating the connotation**) 만드는 방식으로 확장하게 됨.
- "더 많은 사례를 포괄한다"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몽개진 개념(blurred concept)** 이 만들어짐.

비교연구의 핵심 과제는 사다리를 의식적으로 오르내리면서 외연 확장과 내포 유지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수준 범주의 발전이 가장 중요**(Sartori 1970).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유형

### 추상성의 수준에 따른 개념의 유형

정의	추상성	경험적 지칭성	명칭
이론적 정의	높음	낮음	구성개념(construct)
조작적 정의	낮음	높음	측정지표(indicator)

- **구성개념(construct)**: 이론적 정의에 의해 규정된 추상적 개념 (예: 민주주의, 정당성)
- **측정지표(indicator)**: 조작적 정의에 의해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형태로 전환된 개념 (예: Polity IV 점수, V-Dem 선거민주주의 지수)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유형

### 측정방식에 따른 유형: 분류척도

#### 분류척도(classificatory measure), 명목척도(nominal measure)

- 지칭대상이 특정한 속성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밝혀주는 척도.
- 상호배타적인 속성구간들을 지니고 있어서 지칭대상이 그 구간들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분류할 수 있게 해줌.
- 속성의 존재 여부만을 밝혀주며 상대적, 절대적인 속성 심도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함.
- **예시:** 정치체제를 '민주주의/권위주의'로 분류하는 것, 성별을 '남/여'로 구분하는 것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유형

### 측정방식에 따른 유형: 비교척도

#### 비교척도(comparative measure), 순위척도(ordinal measure)

- 지칭대상에 특정한 속성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속성의 존재여부에 더해 **상대심도(relative magnitude)**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하므로, 분류척도에 비하여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이 풍부함.
- 그러나 속성의 절대심도(absolute magnitude)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함.
- **예시:** '완전 민주주의 > 결함 있는 민주주의 > 혼합체제 > 권위주의'로 순위를 매기는 것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유형

### 측정방식에 따른 유형: 정량척도

#### 정량척도(quantitative measure)

- 명목척도와 비교척도의 성격을 모두 가지며, 지칭대상이 가진 속성의 **절대량** 혹은 **절대심도** 라는 계량정보를 추가로 제공함.
  - **비율척도(ratio measure)**: 절대영(0, absolute zero)을 가지고 있음.
    - **예**: GDP, 인구수, 투표율
  - **등간척도(interval measure)**: 절대영이 없음.
    - **예**: 섭씨 온도, 이데올로기 좌우 스펙트럼 점수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유형

### 측정방식에 따른 유형: 정량척도의 주의사항

정량척도는 세 척도 중에서 가장 풍부한 정보를 전달하며, 이론화 과정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가장 바람직함.

**그러나** 본질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개념을 정량척도로 조작정의하면 지칭대상의 모습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

- 정보내용이 풍부하다고 해서 본래 분류척도나 비교척도의 수준을 넘을 수 없는 개념을 억지로 정량척도로 재구성해서는 안 됨.
- **예시:** '정치적 자유'를 0에서 100까지의 연속변수로 측정할 때, 그 숫자 간의 간격이 실제로 동일한 차이를 반영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퀴즈 2: 측정 수준의 적용

**Q. 한 연구자가 '부패(corruption)'를 연구하고자 한다. 다음 세 가지 측정 방식 각각이 어떤 척도 유형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1. 국가를 '부패 국가'와 '비부패 국가'로 이분하는 것
2.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0~100점으로 활용하는 것
3. 국가를 '매우 부패', '다소 부패', '약간 부패', '청렴'으로 4단계 서열화하는 것

## 퀴즈 2: 측정 수준의 적용

Q. 한 연구자가 '부패(corruption)'를 연구하고자 한다. 다음 세 가지 측정 방식 각각이 어떤 척도 유형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A.

1. **명목척도(분류척도)**: 부패의 존재 여부만 파악 가능하나, 부패의 정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2. **등간척도(정량척도)**: 풍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나, 인식 기반 지수이므로 실제 부패의 절대량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논란이 있음. 또한 절대영이 존재하지 않음.
3. **순위척도(비교척도)**: 상대적 정도를 비교할 수 있으나, 각 범주 간 간격이 동일한지 알 수 없음.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요건

### 이론적 요건: 체계적 함의

#### 체계적 함의(systematic import), 이론적 함의(theoretical import)

- 개념은 여러 개의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이론망을 구성하는 매듭**의 역할을 함.

어떤 개념이 과학적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1. 가능한 한 많은 다른 개념들과 이론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여러 개의 이론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함.
2. 것처럼 다양한 이론들이 바로 이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함.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요건

### 이론적 요건: 체계적 함의

개념은 이론 속에서 기대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과학적 효용성을 갖게 되며, 그러한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호환성의 확보를 통해 개념과 개념, 이론과 이론을 연결하여 포괄적인 이론망을 구축하는 역할.

Q. 모든 정치학적(사회과학적) 개념들의 정의가 통일되어야 하는가?

- 개념의 체계적 함의를 높이기 위하여 **개념정의의 통일**을 지향할 것인가?
- 다면적인 사회현상의 본질을 고려해 **개념정의를 완전히 개방**할 것인가?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요건

### 이론적 요건: 다양성과 합의 사이의 균형

엄정한 과학철학의 분석기준과 연구자의 고유한 인식, 현실세계의 모습이 완벽하게 조응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가능한 한 분석기준을 준수하되 그 결과로 얻은 지식을 맹신하지 않는 것.**

시각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또 한편으로 그들을 통일할 수 있는 합의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함.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요건

### 이론적 요건: 경험적 함의

#### 경험적 함의(empirical import)

- 모든 개념은 실증지표로 조작정의 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지칭대상의 속성에 관한 명백한 분류척도를 갖추어야 함.
- 과학적 지식의 검증은 추상적 구성단위들이 구체적이지자 경험적인 측정지표의 형태로 전환 될 때 가능함.

경험적 함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함.

1. 가설이나 이론의 **검증가능성**을 보장해줌.
2. 관측과 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해줌.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요건

### Gerring (1999)의 8가지 기준

Gerring (1999)은 "좋은 개념(good concept)"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8가지를 제시하였음.

기준	핵심질문
(1) 친숙성 Familiarity	일반 독자나 학술 청중에게 얼마나 친숙한가?
(2) 공명 Resonance	선택한 용어가 인지적으로 '울림'을 주는가?
(3) 간결성 Parsimony	용어와 정의 속성의 목록이 얼마나 간결한가?
(4) 내적 일관성 Coherence	사례와 속성들이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
(5) 차별성 Differentiation	인접 개념과 얼마나 명확히 구별되는가?
(6) 깊이 Depth	지칭 사례들이 공유하는 수반 속성이 얼마나 많은가?
(7) 이론적 유용성 Theoretical Utility	더 넓은 이론 체계 내에서 얼마나 유용한가?
(8) 분야 유용성 Field Utility	인접 개념들의 체계 전반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요건

### Gerring (1999)의 8가지 기준: 세부 설명 (1)

**(1) 친숙성(Familiarity):** 새로운 정의는 기존의 일상적, 학술적 용법과 가능한 한 부합해야 함. 핵심적인 의미는 유지하고, 주변적인 속성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공명(Resonance):** 용어가 인지적으로 "울림"을 줄 수 있어야 함. Marx가 'working classes' 대신 **proletariat**를 선택한 것은 공명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로 인해 친숙성을 일부 희생하였음.

**(3) 간결성(Parsimony):** 용어 자체와 정의 속성 목록 모두 간결해야 함. ideology가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유 중 하나는 그 간결성에 있음.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요건

### Gerring (1999)의 8가지 기준: 세부 설명 (2)

**(4) 내적 일관성(Coherence):** 개념을 구성하는 속성들이 논리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며, 하나의 "핵심 의미(core meaning)"로 수렴되어야 함. 민주주의의 핵심 의미는 흔히 "인민에 의한 통치(rule by the people)"로 간주됨.

**(5) 차별성(Differentiation):** 인접 개념들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함. '국가(state)'를 정의할 때 부족, 도, 제국 등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함.

**(6) 깊이(Depth):** 개념이 포괄하는 사례들이 공유하는 수반 속성이 많을수록 개념의 "깊이"가 큼. 미국 남부(the South)는 서부(the West)보다 더 깊은 개념. 남부를 특징짓는 공유 속성이 훨씬 많기 때문.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요건

### Gerring (1999)의 8가지 기준: 세부 설명 (3)

**(7) 이론적 유용성(Theoretical Utility):** 개념은 이론 구축의 기본 단위이며, 이론적 틀 내에서 유용해야 함. anomie, libido, mode of production, charisma 같은 개념들은 각각 Durkheim, Freud, Marx, Weber의 이론 없이는 사회과학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함.

**(8) 분야 유용성(Field Utility):** 하나의 개념을 재정의하면 인접 개념들의 의미 체계도 함께 변함. 'corporatism'을 재정의하면 'pluralism'의 의미도 변하고, 'democracy'를 재정의하면 'authoritarianism'의 의미도 변함.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요건

### Gerring (1999)의 8가지 기준: 기준 간 상충(trade-offs)

개념 형성은 고정된 규칙을 따르는 과정이 아니라 **8가지 기준 간의 균형을 찾는 과정**(Gerring 1999). 한 기준을 높이면 다른 기준이 낮아지는 경우가 빈번함.

상충 예시	내용
친숙성 vs. 차별성	기존 일상어 의미를 따르면 인접 개념과 구별이 어려워짐
간결성 vs. 내적 일관성	속성을 줄이면 간결하지만, 핵심 의미가 흔들릴 수 있음
이론적 유용성 vs. 친숙성	이론에 최적화된 개념은 통용 어법에서 벗어날 수 있음
깊이 vs. 간결성	많은 공유 속성을 포함하면 깊이는 늘지만 정의가 길어짐

'좋은 개념'이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대안적 정의들과의 비교 속에서 상대적으로** 평가됨 (Gerring 1999).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요건

### 측정요건: 측정타당성(measurement validity)

측정하려는 속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때 확보됨.

- 측정타당성을 잃게 되면 측정결과는 **정형적 오류(systematic error)**에 빠져 연구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됨.
- 정형적 오류란 측정지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측정결과가 모두 일정한 형태로 뒤틀리는 오류를 지칭함.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요건

### 측정요건: 측정타당성의 네 가지 유형

#### 액면타당성(face validity)

- 단순히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확보된 측정타당성을 지칭함.
- 조작정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론이나 개념정의를 없다면 연구자는 자신의 고유한 판단에 따라 지표의 측정타당성을 점검할 수밖에 없음.

####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표집타당성(sampling validity)

- 지표들이 측정대상의 속성을 빠짐없이 측정할 수 있을 때 확보됨.
- 개념이 지칭하고 있는 의미를 포괄하는 정도에 따라 측정지표들이 지닌 내용타당성의 수준이 결정됨.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요건

### 측정요건: 측정타당성의 네 가지 유형

#### 예측타당성(predictive validity), 기준타당성(criterion-related validity)

- 어떤 속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
- 측정 값과 실제 값 사이에 어느 정도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가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됨.

####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

- 측정지표가 다른 지표와 연결되는 양상이 이론적 기대와 상응하는 정도를 지칭함.
- 가설이 검증된 이후에야 판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서 다룬 세 가지 측정타당성과 성격  
을 달리 함.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요건

### 측정요건: 신뢰성(reliability), 안정성(stability)

어떤 지표를 사용한 측정의 결과와 관련된 요건. 만약 같은 속성을 여러 번 측정했을 때 늘 동일한, 혹은 아주 비슷한 값을 얻을 때 확보됨.

- **변이오차(variable error)**의 크기로 판정됨.
- 첫째, 같은 연구자가 동일한 지표를 사용해 주어진 대상을 두 번 이상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
- 둘째, 서로 다른 연구자들이 같은 대상을 동일한 지표를 통해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
- 안정성의 수준은 **실험-재실험 절차(test-retest procedure)**를 통해 파악 가능함.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요건

### 측정요건: 신뢰성(reliability)

####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 같은 속성을 **대안적 지표들**을 사용해 측정했을 때 그 결과가 서로 합치하는 정도.
- 대안적 지표란 같은 속성을 재기 위해 만들어진 서로 다른 자(ruler)를 지칭함.
- 조작정의를 내릴 때에는 측정하려는 속성들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축하는 동시에, 그러한 지표들이 측정결과의 안정성과 내적 일관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 역시 점검해야 함.

# 과학적 개념

## 개념의 요건

### 측정타당성과 신뢰성의 관계

구분	핵심질문	오류 유형	비유
측정타당성(Validity)	측정하려는 것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	정형적 오류(systematic error)	과녁의 중심을 맞추고 있는가?
신뢰성(Reliability)	반복 측정 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변이오차(variable error)	쏟은 화살들이 모여 있는가?

-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님.
- 항상 같은 곳을 맞히더라도(높은 신뢰성) 그 곳이 과녁의 중심이 아닐 수 있음(낮은 타당성).

 **연구 사례 분석**

**Park & Park (2024)**

**"You Scratch My Back and I Scratch Yours"**

**권위주의적 호혜성과 망신주기 전략의 정치**

# 연구 사례 분석

## 논문 소개

**Park, Chun-Young, and Sanghoon Park. "You Scratch My Back and I Scratch Yours: Autocratic Reciprocity in the Politics of Naming and Shaming." *International Interactions***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권위주의 국가들이 인권에 관한 망신주기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분석함.

핵심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음:

"무엇이 일부 권위주의 국가들을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보다 더 많은 인권침해와 관련한 망신주기에 관여하게 만드는가?"

# 연구 사례 분석

## 이론적 틀: 권위주의 정당성의 문제

이 연구의 이론적 출발점은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성 결핍(legitimacy deficit)**.

- 권위주의 체제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인권 보호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적 성과, 국제적 참여, 유사 민주제도(선거, 의회, 정당) 도입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지만, 각 전략은 비용과 불확실성을 수반함.
- 국제 인권 레짐에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정당성 확보 전략이 될 수 있음.

# 연구 사례 분석

## 핵심 개념의 개념화: "망신주기(Naming and Shaming)"

**지칭하기/공론화하기(naming)**: 국제규범을 위반한 국가를 지정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 이때 가치판단이 아닌 정보 전달이 주요 목적.

**망신주기(shaming)**: 대상 국가를 낙인(stigma)화하여 규범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위반자를 처벌함으로써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

- 구체적인 인권 의제를 언급할수록 지칭하기 수준이 높아 마찬가지로 망신주기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

이 구분은 기존 문헌에서 혼용되던 두 과정을 분리하여 분석적 명확성을 확보한 사례.

# 연구 사례 분석

## 핵심 개념의 개념화: "권위주의 호혜성"

**권위주의 호혜성(Autocratic Reciprocity)**란 권위주의 국가들이 UPR에서 서로에게 우호적인 권고를 교환함으로써 국제적 정당성을 상호 대여(lend and borrow)하는 전략

이 개념은 두 가지 하위 메커니즘으로 구성됨.

1. **일탈자들의 결속(Ganging up with deviants)**: 권위주의 국가들끼리 우호적 권고를 교환하여 낙인을 최소화하는 것
2. **잠자는 개를 깨우지 마라(Let sleeping dogs lie)**: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는 것. 이는 인권 문제에서 자신들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보복적 비판을 피하려는 전략.

# 연구 사례 분석

## 이론적 정의에서 조작적 정의로

이 논문은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전환했는가?

구분	이론적 개념(구성개념)	조작적 정의(측정지표)
종속변인	지칭하기와 망신주기의 강도	UPR 권고의 구체성: 3점 서열척도 (1=칭찬, 2=중립, 3=비판)
설명변인	체제유형 조합(Regime Dyad)	V-Dem LIED 지수 기반 4개 쌍 범주 (민주-민주, 권위-권위, 민주-권위, 권위-민주)
통제변인	지정학적 친화성, 동맹, 경제적 관계, 인권 수준 등	UNGA 투표 거리, CoW 동맹 데이터, 세계은행 GDP, 잠재인권점수 등

# 연구 사례 분석

## 종속변인의 측정: UPR 권고의 구체성

종속변인인 **지칭하기와 망신주기의 수준**은 UPR 권고문의 구체성을 기준으로 3점 서열척도로 측정되었음.

범주	설명	예시(대중국 권고)
칭찬(Praising) = 1	최소한의 행동이나 현재 노력의 지속을 요구하는 권고. 현 상태를 인정하며 낙인을 부여하지 않음.	벨기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계속 줄여나가라'
중립(Neutral) = 2	일반적인 수준의 행동이나 추가적 진전을 요구하는 권고. 구체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으며 광범위한 개선을 촉구.	불가리아: '중국 입법에서 사형 범위 축소에 추가적 진전을 이루라'
비판(Shaming) = 3	구체적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권고. 누락된 규범적 속성을 명시하여 실질적 행동 변화를 요구.	쿠웨이트: '고아, 노숙아동 보호 및 장애아동 재활을 위한 전문 서비스 기관 수를 늘려라'

# 연구 사례 분석

## 종속변인의 측정: 개념화 과정의 평가

이 논문의 종속변인 측정에서 주목할 점.

### 개념화의 강점

- 기존에 이분법(지칭하기/망신주기 vs. 그 외 전략)으로 다뤄지던 지칭하기 및 망신주기 전략을 **칭찬, 중립, 비판의 3단계 서열척도**로 세분화함으로써 정보의 풍부함을 높임.
- Terman and Voeten (2018)의 기존 코딩 체계를 차용하여 학술적 호환성과 재현가능성을 확보함.

### 개념화의 한계와 물화(reification)의 가능성

- UPR 권고문의 "구체성(specificity)"이 곧 "망신주기 강도"를 완전히 포착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매우 구체적이지만 우호적 의도를 가진 권고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

# 연구 사례 분석

## 설명변인의 측정: 체제유형 쌍(Regime Dyad)

설명변인인 **체제유형 쌍**은 V-Dem의 LIED(Lexical Index of Electoral Democracy) 지수를 기반으로 측정되었음.

LIED 지수는 6개의 이진 지표로 구성됨.

- |                  |             |
|------------------|-------------|
| 1. 의회 선거 실시 여부   | 4. 남성 보통선거권 |
| 2. 행정수반 선거 실시 여부 | 5. 여성 보통선거권 |
| 3. 다당제 경쟁 여부     | 6. 선거 경쟁성   |

이를 기반으로 검토국(Reviewer)과 피검토국(SuR)의 체제를 각각 분류한 후, 4개의 쌍 범주를 생성하였음.

# 연구 사례 분석

## 설명변인의 측정: 체제유형 쌍(Regime Dyad)

쌍 유형	검토국	피검토국	이론적 기대
민주-민주 쌍	민주주의	민주주의	인권 위반에 대한 공정한 비판 예상
권위-권위 쌍	권위주의	권위주의	상호 우호적 권고 예상 (가설 1a)
민주-권위 혼합 쌍	민주주의	권위주의	인권 위반에 대한 비판 예상
권위-민주 혼합 쌍	권위주의	민주주의	비판 자제 예상 (가설 1b)

# 연구 사례 분석

## 설명변인 측정의 방법론적 함의

이 논문의 설명변인 측정에서 **추상화의 사다리**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음.

- LIED 지수를 사용하여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이분법적(dichotomous)** 으로 분류하는 것은 Sartori (1970)의 사다리에서 비교적 **상위 수준**에 해당함. 외연은 넓지만 내포는 축소되어 있음.
-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V-Dem의 EDI(Electoral Democracy Index) 차이 변수를 통제변인으로 포함함으로써, 같은 범주 내에서의 **민주화 수준 차이(within-variation)** 를 반영하려고 시도하였음.
- 또한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에서 민주주의를 '신생 민주주의'와 '확립된 민주주의'로 세분화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음.

# 연구 사례 분석

## 이 논문에서 배울 수 있는 개념화의 교훈

수업 핵심 개념	논문에서의 적용 사례
이론적 정의 → 조작적 정의	'지칭하기 및 망신주기'라는 추상 개념을 UPR 권고의 구체성이라는 관측 가능한 지표로 전환
측정 수준의 선택	망신주기 전략의 강도를 3점 서열척도(명목도 정량도 아닌)로 측정
물화(reification)의 인식	UPR 권고의 구체성 ≠ 지칭하기 및 망신주기 그 자체임을 인지
개념 확장의 딜레마	'민주주의/권위주의' 이분법의 외연 확장에 따른 내포 손실을 EDI 차이 변수로 보완
구성타당성	체제유형 쌍이 망신주기 행태와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방식으로 연관되는지 검증

# 연구 사례 분석

## 개념화에서 측정까지의 흐름 요약

이 논문의 연구설계를 통해 개념화의 전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음.

**1단계: 이론적 정의** "권위주의 호혜성"이라는 개념을 정당성 결핍 이론에 기반하여 정의함.

**2단계: 조작적 정의** UPR 권고의 구체성을 3점 척도로 코딩하고, LIED 지수를 활용하여 체제 유형 쌍을 분류함.

**3단계: 측정과 검증**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대안적 체제 측정 지표 (BMR, Polity V 등)를 사용한 강건성 검증을 수행함.

# 과학적 개념

## 요약: 개념화와 측정의 전체 흐름

단계	내용
이론적 정의	추상적 개념의 핵심 속성을 이론적으로 규정 (예: 민주주의 = 경쟁적 선거 + 시민적 자유 + 정치적 참여)
조작적 정의	이론적 정의를 관측 가능한 지표로 전환 (예: V-Dem EDI 지수, Freedom House 점수)
측정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표에 따라 수치를 부여 (명목/서열/정량 척도의 선택)
검증	측정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 점검 (대안적 지표를 통한 강건성 검증 포함)

# 과학적 개념

## 요약: 핵심 교훈

### 1. 개념 형성은 이론 형성과 불가분의 관계.

좋은 이론은 잘 정의된 개념을 필요로 하고, 명확한 개념은 이론적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가짐.

### 2. 개념화는 규칙이 아닌 절충(trade-off)의 과정.

Gerring (1999)의 8가지 기준은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고려해야 할 다양한 차원들을 보여줌.

### 3. 추상적 개념과 경험적 지표 사이의 간극을 항상 의식해야 함.

물화(reification)를 경계하고, 대안적 지표를 통한 검증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함.

# 과학적 개념

요약: 핵심 교훈

## 4. 비교연구에서는 개념의 이동가능성(travelling capacity)에 주의해야 함.

Sartori (1970)의 추상화의 사다리를 의식적으로 활용하여, 외연 확장과 내포 유지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함.




## 5. 기술(description)은 인과 추론의 전제.

'민주주의가 평화를 촉진하는가?'를 검증하기 전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술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Gerring 2012).

##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강사 연락처

연락처	박상훈
	<a href="mailto:sh.park.poli@gmail.com">sh.park.poli@gmail.com</a>
	<a href="http://sanghoon-park.com/">sanghoon-park.com/</a>
	영상바이오관 405